

與는 ‘檢 개혁’ 野는 ‘빨 파면’ 총공세

당정, 사법개혁 드라이브...한국당·바른미래 국조요구서 제출 민주 “민생 방치 말라” vs 한국당 “조장관 사수가 국회 걸림돌”

여야의 의사 일정 조정 합의로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와 조 장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하면서 ‘조국 파면’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민생 방치 정쟁·분풀이’라고 비난했고, 한국당 등은 여권의 조 장관 사수가 민생 국회를 막고 있다면서 역공을 퍼붓는 등 여야는 이날도 전방위로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교육당정을 동시에 개최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조국 장관이 참석한 사법개혁 당정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 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내 핵심인사가 총출동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조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뿐 아니라 시행령과 지침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 총망라해 사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 조 장관 임명에 따른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 ‘사수 방해’라는 공격을 받았던

이른바 공보준칙 문제는 조 장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이후에 적용기로 수위조절을 하면서 논란 확산 차단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민생 외면으로 규정하고 계속 몰아붙였다. 대지열병 등 민생 현안은 도외시한 채 야당이 조 장관 문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민생이나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조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비에도 착수했다. 또 한국당 등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정쟁·분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김경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제출한 요구서는 사모펀드 및 입사, 옹호학원 등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권은 본회의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동되는데 이날 요구서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28명이 서명한 상태다. 재직 의원(현 297명)과 정의당 및 민주평화당 등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군소야당의 입장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찬성했으며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민주평화당(당적 기준 4명)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9명)는 국조요구서 동참에 거부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소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공조 방안을 계속 모색할 예정이다. 또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원내 투쟁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여당의 민생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여권이 ‘조국 사수’로 오히려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2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내달 2일부터 국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여야가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여야 교섭단체들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9월 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날 전하 통화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러한 정기국회 일정을 소개하면서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며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로 오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합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경제활성화 우선 중점법안 238개 선정

민주당 의원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38개를 선정해 입법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해 공유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의의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해 구체적인 법안을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238개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개혁 정쟁법안 ▲장기 계류 비정점법안 등 4개 카테고리도 주요 입법과제를 나열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장기 계류 비정점법안의 경우 합의를 통해 빠르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독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총선 위해 일치단결”

민주 창당 64주년 기념식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창당 64주년을 맞아 당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당원과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기념사에서 “민주당은 1955년 창당돼 64년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정당”이라며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집권)했지만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아주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보고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된다는 각오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해 우리의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이 민생, 혁신, 단결이라는 3가지의 기본을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패권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다시 열어낼 수 있다”며 “당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사건 종결 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사수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보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

는 검정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검찰 별건 수사 반드시 금지해야”

사법개혁 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검찰의 별건 수사를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며 근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당의 한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대표는 “별건 수사는 범죄 혐의가 없으면 다른 것을 별건으로 수사해 범죄를 기각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며 “별건 수사는 꼭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정국이었던 지난달 28일 조 장관 일

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 수색과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되자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 검찰의 ‘적폐’에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가 옛날에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닌데 아무런 혐의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돼 내 정보를 많이 가져갔다’고 말한 뒤 별건 수사를 하도록 꺼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판박이로 가니까 이 대표가 별건 수사 얘기를 꺼내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처럼 들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서양 사상에 ‘형법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혁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공공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융복합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 선 대 평 생 교 육 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휴양림 부근 31976㎡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5억5천
- 무안 용탄면 영산강점 땅 48900㎡ 팬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택시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사철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운양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상가건물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경남 하동군 화계면 범원리 청정지역 땅 1372㎡ 펜션적합 건평 269㎡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칠물시까지 3km 4억6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 신축 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물 613㎡ 안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특급물건

- 곡성군 목사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답과 임 234044㎡ 다용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전면 상암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점 펜션 땅 2399㎡ 시설 완벽 투자까지 양호 16억
- 영광 연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동 2억 급매 3억6천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속가능 환형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암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묘문앞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충 앙 222-9054	·충 정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철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임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9-1500	·광 산 944-0444	